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경대
인문대학 겸임교수

소통은 방식 아닌 내용에 달렸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변화와 소통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소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의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칭한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페이스와 우리나라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링크나우 등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관계지향 서비스로도 불린다.

SNS, 자유로운 소통이 강점으로 새로운 관계문화 형성에 기여해 그러나 결국 수단에 그칠 뿐이지 소통의 주체·본질 자체는 아니야

한편으로 이것들은 온라인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기능과 개인이 중심인 미니홈피와 미디어 성격이 강한 블로그 서비스의 확장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온라인 카페보다는 개인적이고 미니홈피보다는 확장성이 강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소통 채널이 인간관계 전반을 바꿔 놓고 있다. 가히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불리며 스마트폰 세상을 앞당기고 있다. 기존의 PC 중심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이 나아가 안방의 텔레비전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소통의 역사를 다시 쓰는 셈이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미디어의 성격이 강해 소셜 미디어로 분류한다. 흔히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오늘 전통적인 4대 미디어로 부른다. 그러나 IT가 발달하면서 떠오른 새로운 미디어는 온라인과 디지털 그리고 소셜 미디어로 나타난다. 참여나 연결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경험 따위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되었다. 어떻게 보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출현하면서 소셜 미디어라는 장르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열광하는 것일까. 지금껏 개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소통 방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산업 사회로 오면서 지구촌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해졌다.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 대중화와 맞물려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든 것이다.

기존의 인간관계는 혈연내지 지연이나 학연이 대세였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도 친구나 가족과 직장동료들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에서 조금은 인맥을 넓혀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범위가 좁고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생기면서 카페와 커뮤니티가 새로운 관계 문화를 주도했다. 여

러 가지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 준다. 손쉽게 자신과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차적으로 '나'라는 개념이 생기고 여기에 서로 다른 개인들과의 연결이 형성되고 이들을 통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미디어이며 커뮤니티 공간인 동시에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참가자가 서로 다른 친구를 소개하며 관계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 자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선거와 같은 공공적 선택에서 느슨한 인맥이 갖는 힘은 사실 그리 크지 않다. 더욱이 투표는 부담감 없는 익명 행위이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하기에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요청된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살아가고 가는 모습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양식이기도 하다. 인연이나 인맥을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네트워크다. 이제의 일반 대중도 현실과 시대 변화의 흐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이든 핵심은 전달방식이 아닌 전달한 내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社說

불교포럼에 거는 기대 크다

조계종이 사회 각계 재가 전문가를 결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불교포럼'으로 명명된 이 단체는 기존 종책 자문단을 확대해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김희옥 동국대 총장, 박진열 한국일보사 사장, 김중규 삼성출판사 명예회장, 최용원 육군중장 등 법조 행정 경제 교육 등 14개 분야 저명인사를 모아 2012년 1월 31일 발족할 예정이다.

이들이 맡은 역할은 불교계 가르침에 입각한 사회 공동선 구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명평화 공동체 구현, 분쟁과 갈등 조정을 통한 화쟁사회 구현, 못 생명에 대한 나눔의 보살핌 실천,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전통문화 보존 등이라는 것이 조계종의 설명이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다.

용이다.

불교계는 이미 조계종 총무원이 꾸린 화쟁위원회를 알고 있다. 그것이 결사추진본부로 구조조정된 것도 목격했다. 이번 불교포럼 또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상공업 중심의 자본가가 승가를 의뢰했다. 이번 불교포럼 구성 역시 액면가대라던 재가자를 결집해 불교 및 종단 발전의 조력자로 삼은 것으로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불교계와 종단 전체를 아우르는 큰산이 아니라 총무원 집행부만을 케어하는 사조직이 돼서는 안된다. 재가 저명인사의 신심을 약용해 승가 전체가 아닌 특정승부 몇몇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민원 통한 정책 변화는 한계가 있다

취임 이후 조계종을 첫 예방한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조계종이 민원을 쓴 것이다. 문화재위원 장적 스님은 "문화재청에 불교문화재 전담인력이 없다"며 "사찰문화재과와 문화재 개보수 전담반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청장 진명 스님과 기획실장 정만 스님도 각각 문화재 예산 균형과 연등회 국가문화재지정을 요청했다.

스님들의 발언은 구구절절하게 웅은 요청이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다. 옛사람의 말씀 가운데 "저절로 되게 하라"는 말도 있는 것을 보면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가운데 불화, 탕을 도(圖)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의 동의도 거처하고 했다. 문화재 행정의 결정은 문

화재청 실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작 큰 그림은 문화재위원들이 그리고 있다. 문화재위원 가운데 불교계 관련 인사 수가 적다보니, 전문분야 보존을 위한 불교계 행보에 적잖이 걸림이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화재청장을 향한 조계종의 민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원은 민원일 뿐, 정책의 주류가 될 수 없다. 또 다른 민원과 상충하면 묻히고 사라지는 것이 민원인 것이다. 인맥으로 큰일을 도모하려 해서는 안된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교포럼을 비롯한 조계종의 많은 인연들이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정책연구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누가 총무원을 예방해도 '차나 마시고 갈 수 있는 [喫茶去]' 그런 조계종이 되기를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김영욱
만다라미술심리
연구원장

현대인을 위한 강력한 정신치료제 만다라

만다라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우주의 전리이자 원형(原型)이다.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마음과 정신건강의 강력한 치료제 역할로서 다가 설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로 세상의 변화에 맞물려 자신의 차원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만다라 작업에서 얻은 체험을 소개해 볼까 한다.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구전체가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온몸으로 감지 한 바, 만다라작업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수정하며, 정화되는 가운데 조금씩 자신을 알고 남을 이해하게 되었다.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으로 시작한 만다라작업은 우주 대 탐험의 현상이 되었고, 가장 집중을 요하는 전각(篆刻)기법으로 꿈의 상징을 새겨서 하나하나를 찍어 연결되는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연출했다. 그리고 고해를 넘어 거대한 빛의 세계까지 심오한 층층의 내면세계를 풀어내면서 생명의 근원을 만났다.

하나가 있어 전체가 있고, 전체가 있어

개별이 존재하듯이 큰 수레바퀴의 원동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실천하는 삶과 연결되어야만 했다. 소소한 가정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까지의 실천행이 작업과 맞물려야만 그 원동력이 크게 발휘되기 때문이다. 온정의 손길과 따뜻한 입김으로 세상에 서서히 스며드는 것은 작은 바퀴살들의 형성 과정이라 느꼈고, 세상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그 느낌을 작업과 일치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나하나의 작은 바퀴살들이 모여 이 거대한 우주의 수레바퀴를 이루게 됨을 만다라작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 처음 만다라를 그릴 당시에는 원 가운데 한 점에서 출발했다. 이제 그 원의 중심에서 생성되는 일체가 대 생명력의 빛으로부터 눈을 떠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체의 생명이 잉태될 때의 그 온전한 모습은 성별도 이름도 없이 똑같다는 것. 세상에 태어나 너, 나 분별은 있으나 생명의 층층이 거슬러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하나였음을 알게 됐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면 우주

와 일치를 이루며, 사람의 마음에도 드넓은 우주가 깊게 자리하고 있어 인류가 숨쉬는 공동의 장이 된다.

무의식을 일깨워 차원 변화로 거듭나 실현하려고 했다. 자신을 넘어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마음이 되어 실천의 경험들을 통해서 참된 삶을 걸어가도록 노력했다. 작업 시작과 마무리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고, 차원을 끌어올리는 과정에도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추구하는 예술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며, 그것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 안에서 정신의 본질을 끊임없이 되찾아야만 실현의 길로 접어들다고 생각한다.

명상집 <불음의 화두>란 주제로 만다라를 제작하면서 광명정대한 천성과 슬기로운 창조력, 끈질긴 생명력을 발견했다. 앞으로 이 뜻으로 하나 된 세상을 밝혀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고요한 동방의 빛으로 무한한 자유와 세계평화를 꿈꾸며 다채롭게 풀어 낸 그림세계는 새로운 만다라 창작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실천행 작업과 맞물려야 원동력 발휘 원의 중심에서 생성된 일체 알면 생명이 눈뜨게 되고 우주 보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행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양지극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책자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